

전자부품연구소 창립 1주년 신개발품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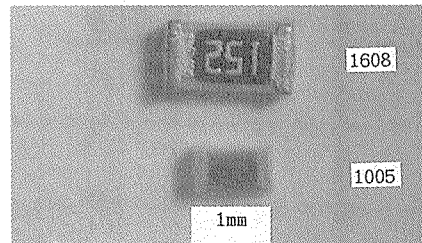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소장 김정덕)가 8월 27일 창립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개발한 신개발품을 연구소내에 마련한 전시실에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전시하여 전자업계 경영인과 기술담당자, 학계, 유관연구기관 등 전자산업 관련 인사에게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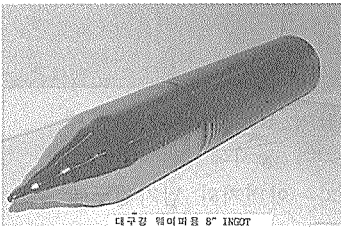
이번에 전시한 신개발품은 캠코더, 줌형카메라, 셀룰러폰 등 경박단소화제품의 필수부품인 1005형 Chip 저항기를 비롯하여 전동기의 종합적인 성능시험이 가능한 Motor 성능시험기, 저렴한 비용으로 열에너지 측정능을 가능케하는 적산열량계용 ASIC(주문형 반도체), IBM PC와 호환성이 있고 CPU모듈 교체시엔 486으로도 이용 가능한 노트북 PC, 반도체소자의 고집적화 요구에 의한 선행연구로서 대구경(8"/10") Wafer용 Ingot 등 10개 품목이 전시됐다.

이중 적산열량계용 ASIC은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사용하던 적산열량계가 아나로그소자와 기타 다수의 개별소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가이면서도 정확도가 낮은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첨단소자로서 기존 10여개의 Chip 및 개별소자로 구성된 기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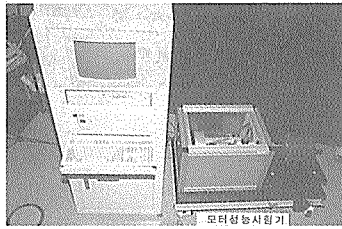
하나의 Chip으로 대체개발한 것이며, 이온펌프는 반도체제조 및 분석, 입자가속기 등의 최첨단기술개발 및 생산에 사용되는 장비의 초고진공을 유지시키는 장치로서 반도체 제조장치의 국산화기반을 제공할 뿐만아니라 극한 기초기술 개발을 가능케하는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자부품에 꼭 필요한 선행연구로서 국내외의 박막전자부품을 비교 분석하여 국산제품의 개선점을 비교 제시하는 한편, 산업용 전자기기의 핵심인 이동통신, 위성통신, CATV 등에 필수적인 소형고주파 부품중 전력전력증폭기(PAM), 온도보상수정 발진기(TCXO), 표면탄성파여파기(SAW Filter) 등의 선행개발과, CATV의 기반기술 구축을 위한 가입자 관리시스템, 네트워크 감시장치 등의 내용도 함께 전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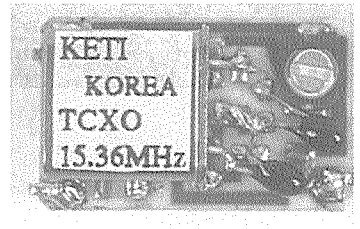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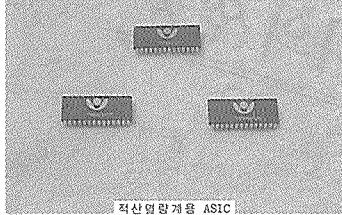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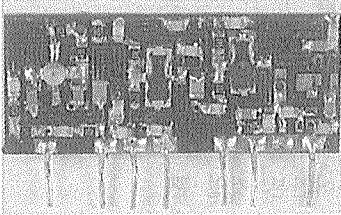
대구경 텀피용 8" ING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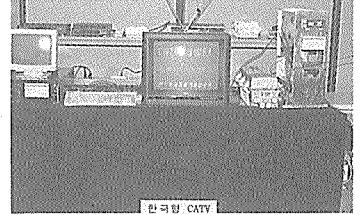
모터성능시험기



KETI
KOREA
TCXO
15.36MHz



적산열량계용 ASIC



한국방·CAT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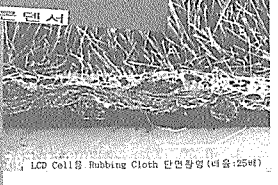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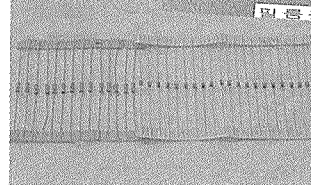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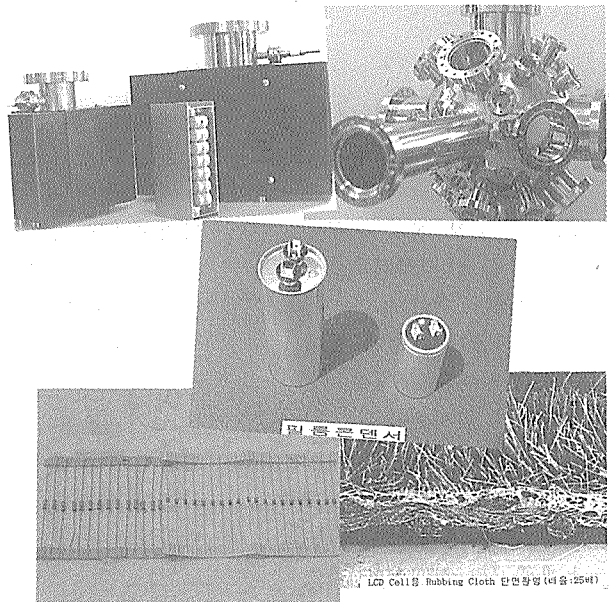
한편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는 국내 전자정보산업이 선진형으로 산업구조조정, 나아가서 차세대 첨단 미래기술개발만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되었는데, 그동안 당면과제인 핵심전자기술 및 부품·소재개발을 적극 수행하여 왔으며 국내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및 취약기술을 개발 지원함과 동시에 전자정보산업의 선진기술개발과 보급 그리고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에도 주력해 왔다.

현재 동연구소는 공업기술기반과제 17건을 비롯 Electro-21사업과제, 기업수탁과제 등을 포함 총 78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국내 CATV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동참하여 CATV기기 및 관련부품개발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구과제 수행과 중소기업체의 현장기술지원을 위한 애로타개 담당관제도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창립 1주년을 맞이한 동연구소는 그동안 연구인력 확충과 조직완비, 연구개발장비 도입 등으로 연구개발기반의 틀은 어느정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연구장비 보강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SX 386 노트북 PC, SMD용 Chip Resistor,



적산열량계용 ASIC, 대구경 INGOT, A/C 모터성능시험기 등을 개발한 것은 연구원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이제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사업과 전자업계의 당면문제인 핵심부품의 기술개발 과제를 도출하고 국내 전자산업 특히 부품산업 소재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력 증진에 힘써야 할 것이고 관련기업에 대한 최대한의 기술서비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내고 그결과 국내 전자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